

진보 교육감·의원 수사 확대 '폭발력'

■ 검찰, CN커뮤니케이션즈 압수수색

'선거비보전액 부풀리기' 파장 클 듯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14일 장 도교육감이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행을 맡긴 CN커뮤니케이션즈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CN커뮤니케이션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의 핵심인 물인 이석기 의원이 최근까지 대표를 맡았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물론 진보통합당 구 당권과 소속 국회의원 및 후보자 등이 주로 선거홍보 등을 맡아 지난해에만 1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CN 커뮤케이션즈? = CN커뮤케이션즈는 이석기 의원이 2005년 설립해 지난 2월까지 운영한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로, 지난 3월 CNP전략 그룹에서 회사 명칭을 바꿨다. 초기에는 한국의국어대 용인캠퍼스와 서울대 등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매출을 올렸다. 자본금은 4억원이지만 2010년 6·2지방선거 장만채, 장휘국, 박노현 등 진보교육감들의 선거홍보를 맡으면서 2011년 총매출이 12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이후 지난 4·11 총선에서도 통합진보당 내 구 당권과 소속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를 도맡았고, 노동조합 등의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 규모가 급신장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특히 장 도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전체 선거비용 14억1000여 만원 가운데 12억원을, 장휘국 광주 시교육감 역시 6억7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업체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순천지청이 수사? =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장 도교육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말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할 때까지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도중 장 도교육감의 계좌, 선거 당시 회계계좌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문건들을 포착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던 검찰은 공소장에 이 같은 사실을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이후 선거 관련 업체들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들이 실제 선거 당시 사용한 금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전 금액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장 도교육감의 선거홍보 대행사인 CN커뮤케이션즈를 주목하고 그 '과과력'을 감안, 대검찰청에 수사 사실을 직보하면서 상당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13일 순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파장 어디까지 =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류 및 컴퓨터 등에는 장 도교육감 관련 사실만이 아니라 CN커뮤케이션즈가 선거홍보를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직원들이 14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개인 사무실인 서울 여의도 CN커뮤케이션즈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검찰 직원들이 14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개인 사무실인 서울 여의도 CN커뮤케이션즈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대행한 진보 성향 교육감, 통합진보당 구 당권과 소속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의 선거 관련 문건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선거비 보전액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면 진보 세력 전반이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장 도교육감과 CN커뮤케이션즈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

또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선거를 치르면서 서울 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 CN커뮤케이션즈에 대한 부당함 '일감 몰아주기'

사실이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동일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그 대상 역시 장 교육감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압수수색한 자료가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수사의 폭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진보교육감 콕 찍어 정치적으로 흠집내나”

■ 시도교육청·통합진보 의원들 반발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14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선거비 보전액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CN커뮤케이션즈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지역 교육청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CN커뮤케이션즈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전남도 교육감으로 출마한 당시 장 후보의 선거기획을 전담하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보물, 공약서, 벽보, 길거리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등 선거운동을 대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 안팎에서는 “검찰이 갑자기 교육감의 선거자금을 수사해 당혹스럽다”면서 “진보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것 같은 의도가 엿보인다”며 “2년 전 선거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도 “이미 2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 받은 것으로 조만간 관련해서 논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 과정에서 차량과 홍보물 제작을 맡겼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담당자가 정상적인 계약을 맺었고, 선거비 보전액 부풀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도 압수

검찰, 서버 열람 작업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서버 열람 작업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와 투표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1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과 관계자가 당원명부 압수에 항의한 뒤 퇴장하고 나서 포렌식협회 이사와 경찰관을 임회시킨 가운데 저녁 9시까지 3번째 서버에 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해 당원명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 저장과 분석에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그 이후 소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는 2010년 3월1일~2012년 2월28일 정리된 22만명 명부, 2012년 2월28일~5월20일 정리된 20만명 명부 등 두 가

지 형태다. 명부에는 당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외에 당비 납부내역 등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당원 81명 당기위 제소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지난 5·12 중앙위 폭력사태와 관련, 모두 81명의 당원에 대해 소속 시도당기위에 제소하고 이들 가운데 직접 폭행에 가담한 30명에 대해서는 제명 등 엄중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당 중앙위사태 진상조사위 이홍우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80명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회의 방해 23명, 단상점거 25명, 폭행 가담 17명 등 65명의 가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두환 육사 사열·골프

남량특집 좀비영화 같다”

강기갑 위원장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14일 “요즘 신문과 뉴스를 보면 여름철 특집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병아리가 계란에서 깨어나 오면 부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부활, 무덤에서 살아난 시체는 좀비라고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좀비 영화의 주연은 군부독재의 망령들”이라며 “확살자이자 내란 수괴인 전두환은 육사에 초청받은 것도 모자라 국가보훈처 소유골프장에서 골프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며칠 전 육사생도 사열로 국가기강 문란행위를 저지른 전 전 대통령이 어제는 아침부터 경기도 88골프장에서 종일 골프를 즐겼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군사독재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신군부 집권 시기, 그리고 유신과 긴급조치, 국가보위입법회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며 “국가관의 문제이니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전체 추출에 대해 “당과 당원 전체를 범죄시키는 유례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정당과 과를 멈추고 당원명부 전체를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과 관련해 “현 위원장은 권력의 입맛을 맞추며 인권단체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주로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지금 누가 누굴 걱정?!

www.millet.co.kr

MILLES
아웃도어의 진상-밀레

엄홍길 대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오르십시오!

밀레 기술공문
엄홍길

밀레 「국립공원 16좌 고객원정대」 모집

엄홍길 대장과 함께 국립공원 16좌를 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조)
- ▶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 ▶ 주최 : MILLES / 주관 : Mtour / 후원 : 광주일보사

두번째 시행 6월 21~22일 (목,금) 무병2일 / 주왕산 (산행루트: 대전사 입구-정상-후리메기굴-2폭포-1폭포-대전사)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가능 매장

- 백화점 롯데광주점 062-221-1686 현대광주점 062-510-7738 아울렛 롯데아울렛광주수원점 062-616-2221 직영점 광주직영점 062-266-6848
- 대리점 밀레광주충무점 062-529-6200 밀레광주첨단점 062-973-7775 밀레광주진월점 062-674-5888 밀레광주무등산점 062-225-2121 밀레광주이월드점 062-385-5555

•고객문의 02)306-7033 •대리점개설문의 02)3153-3203 MOUNTAIN BY EXPERIENCE